



박지성이 지난 6일 밤(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2007-2008 정규리그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에서 상대 진영을 향해 드리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위대한 조연'

### 동점골 도움 8점...팀내 최고 미들즈브러전 무승부 기여

동점골을 도움 8점...팀내 최고  
미들즈브러전 무승부 기여

선제골을 뽑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동점골 주인공인 루니가 나란히 7점을 받은 걸 감안하면 아주 높은 점수다.

특히 박지성은 스카이스포츠로부터 '위대한 조연'(Great Cameo)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다.

박지성은 선발 명단에 들지 못했지만 후반 18분 카를로스 테베스 교체 선수로 기용돼 후반 29분 오른쪽 엔드라인 부근에서 수비수 한 명을 완전하게 제친 뒤 팔볼 패스를 찔러줬고 문전에서 기다리던 루니가 동점골을 성공시켜 2-2 무승부에 기여했다.

박지성은 앞서 지난 2일 AS로마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도 원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출장해 풀타임을 뛰고 평점 7점을 받는 등 두 경기 연속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 전남 벼랑 끝 탈출 노린다

### 내일 AFC 챔피언스 리그 3차전

### 태국팀 상대 광양서 첫 승 도전

### 포항, 중국 리그 우승팀과 일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2연패로 불려 설 곳 없는 전남 드래곤즈가 촌부리 FC(태국)를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9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촌부리 FC(태국)와 G조 3차전 경기를 갖는다. 앞선 멜버른 빅토리(호주), 갑바 오사카(일본)와의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며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린 전남은 반드시 승을 쟁겨야 한다.

각 조 4개 팀이 풀리그를 벌인 뒤 조 1위만이 8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3연패를 당하게 되면 사실상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다.

첫 승 상대는 지난해 태국리그 우승팀인 촌부리 FC. 조별리그에서 1승1무로 승점 4점을 챙기며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으로 첫 승 신고를 위해 힘든 일전이 예상된다.

전남은 지난 5일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K-리그 4라운드에서 성남에 0-4의 대패를 당하며 1

무 3패로 리그 최하위로 주저앉으며 팀의 사기가 떨어졌다.

게다가 주전들이 출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부상으로 지난달 19일 갑바와의 조별리그 2차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던 외국인 공격수 슈바와 산드로는 이번 촌부리와의 경기에도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목 부상으로 재활중인 주장 곽태휘의 복귀 시점도 가능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남의 박항서 감독은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며 승리욕을 불태우고 있다.

박 감독은 "공격수 고기구와 미드필더 김치우가 100%의 몸 상태는 아니지만 부상에서 회복해 촌부리 전에는 뛸 수 있을 것이다"며 "백승민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첫 승 신고에 애가 타는 전남이 9일 '필승'을 위한 일전을 펼치는 동안, 안정세로 접어든 포항은 중국으로 건너가 지난해 중국 슈퍼리그 우승팀 청춘 야타이와 맞붙는다.

애틀레이드(호주)와의 1차전에서 패했던 포항은 지난달 19일 빙憧憬(베트남)을 4-1로 완파하고 1승 뒤 1승을 챙기며 조 3위로 뛰어왔다. 포항은 견고한 수비라인과 공격수 네덜손을 앞세워 2연승으로 상위권 진입을 노리게 된다.

/김연아 아이스 쇼  
내달 서울서 개최



김연아 아이스 쇼

내달 서울서 개최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오랜 만에 세계적인 피겨스타들과 함께 국내 팬들 앞에서 환상의 '은반 쇼'를 펼친다.

김연아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7일 "김연아를 비롯해 2006 토리노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아리카와 시즈카(일본)와 2008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싱글 우승자인 다카하시 다이스케(일본)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연하는 아이스쇼가 5월 17~18일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페스타' 온 아이스(Festa on Ice) 2008'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번 아이스쇼에는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파이널 남녀 싱글과 퍼레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연아와 스테판 랑비에(스위스), 알리오나 사브렌코-로빈 졸코비(독일) 조가 출연을 확정했다.

특히 사브렌코-졸코비 조는 김연아가 동메달을 따낸 2008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최강의 퍼레이 커를 입을 증명했다.

또 남자 싱글 부문에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조니 위어(미국)와 역대 최고점 보유자인 다이스케를 비롯해 캐나다 챔피언 패트릭 차가 눈에 띈다.

## 삼성화재 챔피언 가린다 현대캐피탈

### 남자 프로배구 10일부터 챔프전

남자 프로배구 전통의 라이벌 삼성화재 블루팡스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10일부터 5전3선승제로 치러지는 NH농협 2007-2008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다시 한번 격돌한다.

프로 출범 후 네 시즌 내내 챔프전은 이들 두 팀의 대결이었다. 프로 원년인 2005년에는 삼성화재가 정규리그 2위에 그치고도 챔프전에서는 3승 1패로 현대캐피탈을 격파해 겨울리그 9연패 위업을 이뤘다.

현대캐피탈은 2005-2006 시즌 통합 우승에 이어 2006-2007 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 성적으로

챔프전에 올라 삼성화재를 3연승으로 일축하고 2년 연속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5승2패로 앞섰던 삼성의 우위가 예상된다. 삼성은 득점왕과 서브왕을 석권한 '크로아티아 특급' 안젤코 주크가 막강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안젤코가 뛴 경기는 삼성의 전승이었다.

대한항공과 플레이오프를 1패 뒤 2연승으로 통과한 현대는 가파른 상승세가 밀천이다. 현대는 삼성이 장기전에서 불리한 점을 이용해 5차전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조직력'이 강점인 삼성과 '높이'를 앞세운 현대간 맞대결에서 어느 팀이 초반 기선을 제압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지대 : 홍익대(13 : 5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코하마 : 요미우리>(18 : 00·MBC ESPN)

▲2008 프로야구<롯데 : 삼성>(18 : 00·KBS N SPORTS) <한화 : 두산>(18 : 10·SBS스포츠)

▲SKT T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 <KCC : 삼성>(18 : 50·XPORTS)

10일<수>

▲07/08 UEFA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리버풀 : 아스날>(03 : 30·MBC ESPN)

## 테니스 전용선 세계 랭킹 287위

전웅선(22)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287위에 올랐다.

지난 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끝난 월리자대회 나폴리컵 단식 8강에 올랐던 전웅선은 7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포인트 22점을 보태 329위에서 42계단 수직 상승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300위 벽을 깨 전웅선은 48위에서 한 계단 내려선 이 형백(32·삼성증권)에 이어 국내 2인자가 됐다. 전웅선은 8일부터 이탈리아 몬자에서 열리는 월리자대회 미즈비시 일렉트릭 유럽컵에 출전한다.

일본 퓨쳐스에서 최근 2주 연속 준우승, 4강 진출의 성적을 낸 안재성(23·한솔)도 26계단 상승한 296위에 올라 생애 처음으로 3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제2회 함평라이너스 토너먼트 축제**

**남자부 경기 일정**

1. 1부 대회 경기 2008. 4. 19. 일요일

2. 풀집하우스 및 코스 허브 개최

3. 시상 및 퍼포먼스 공연

4. 캐스토랑 및 힐커 힐트립 설치

■ 예약문의 : (061) 320-7700, 7714